



아다니아 시블리

# 저항의 본성에 관한 교훈

식물인간 상태란 살아 있고 깨어 있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정신적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식물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어떤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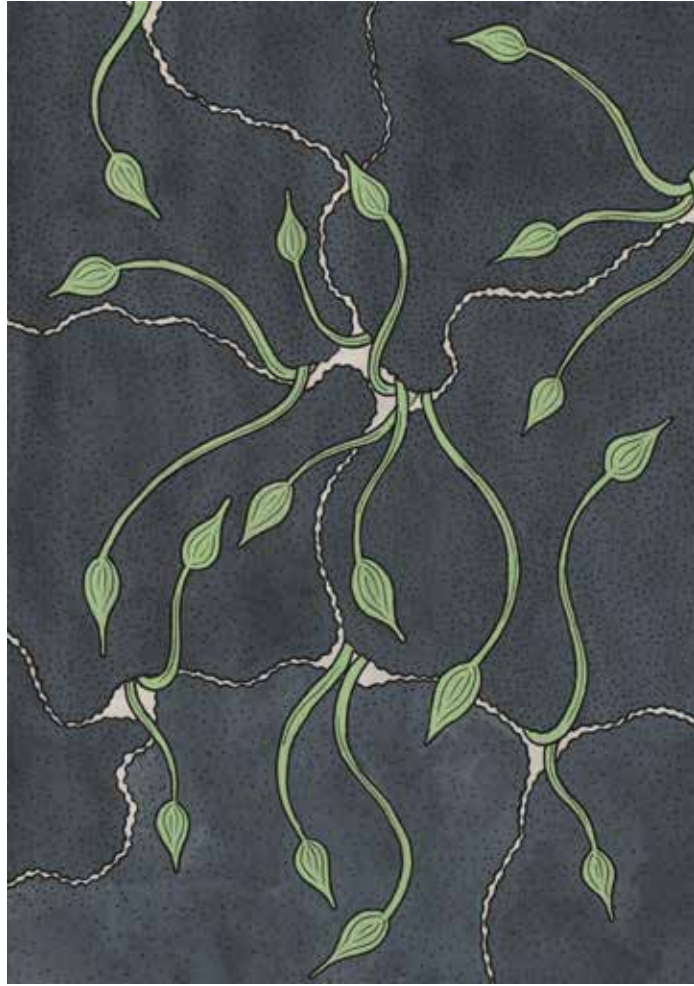
\*\*\*

부모님 댁은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두 분은 오랜 세월 정성껏 정원을 가꾸며 다양한 식물과 과일나무를 심었고, 나무들은 느리지만 끈질기게 자라 마침내 수확물이 쏟아지는 날이 왔다. 무화과, 포도, 석류, 살구, 배, 비파, 대추야자, 딸기류, 아몬드, 그리고 온갖 종류의 감귤까지. 채소도 있었다. 상추, 토마토, 파슬리, 오クラ, 감자, 가지, 피망, 양파, 마늘. 요컨대 우리 집은 시장에서 과일이나 채소를 산다는 생각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질 만큼 풍요로운 정원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데 정원 북서쪽 가장자리, 토양이 더 척박하고 돌이 많은 곳에 작은 케이퍼 덤불이 자랐다. 이 덤불에는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었다. 늦봄이면 꽃이 피어 가을 초입까지 섬세한 흰 꽃잎으로 온 덤불을 장식했다. 둥근 잎사귀 역시 계절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 가을이든 봄이든, 심지어 아랍의 봄이 찾아오더라도 잎은 언제나 연두색을 유지했다. 이 식물은 일 년 내내 귀걸이처럼 생긴 작은 열매를 맺었다. 어린 시절 놀이 중에는 가시를 조심하며 열매를 따서 귀에 걸었고, 어머니들의 귀걸이처럼 대롱대롱 매달리게 했다. 그것 말고는 이 식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연약한 흰 꽃조차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덤불은 늘 그 자리를 지켰다. 아침 일찍 등갯길에 마지막으로 지나치는 정원의 끝이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맞아주는 존재. 때로는 뾰족한 가시와 칙칙한 녹색 앞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 온기와 평온이 밀려왔다. 그것은 또한 그 땅의 진실을 일깨워주었다. 토양의 본성과, 부모님이 낙원을 만들겠다고 모조리 제거하기 전 그곳에서 자라던 식물들을.



그 덩불은 두 분을 무척 성가시게 했다. 뽑아도 뽑아도 다시 자랐다.  
결국 두 분은 덩불을 그냥 내버려두고 마음대로 자라게 했다. 덩불은 아무 방해 없이 자랐는데, 특히 가시 덕분에 자비 없는 아이들의 손길로부터 보호받았다. 부모님은 파슬리 밭이나 가지 순을 밟지 말라고, 살구나무나 비파나무에 올라가 연약한 어린 가지를 꺾지 말라고 수시로 경고해야 했다.



그러다 마침내 결정타가 날아왔다.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특히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두 분은 케이퍼 덩불이 자라던 자리에 작은 창고를 짓기로 했다. 사실 창고가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렇게 하면 쓸모없다고 여기던 케이퍼 덩불 대신 그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땅을 팠다. 깊이 1미터, 폭 4미터쯤 되는 구덩이를 파고 덩불을 뿌리째 뽑아냈다. 그런 다음 구덩이를 돌로 채우고 시멘트로 덮었다. 창고를 다 짓고 나서 바닥에 타일을 깔았다. 케이퍼 덩불과 달리, 검은 현무암 블록이 그대로 드러난 이 건물은 온기나 평온 같은 감정을 전혀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오만함이 떠올랐다. 특히 부모님의 오만함이. 마치 두 분이 마침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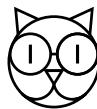


가시 돋친 식물로 나타난 진짜 자연의 마지막 흔적을 집 주변에서 추방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부모님이 그 창고를 지은 지 35년이 넘었다. 지난여름 두 분을 방문했을 때, 향수에 이끌려 정원 뒤쪽과 어린 시절 등하곶길에 지나던 비밀 문을 살펴보았다. 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난 이후로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걸어 다니다가 문득, 창고 벽 맨 꼭대기, 검은 현무암 사이에서 연한 녹색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다름 아닌 케이퍼 덤불이었다. 이번에는 벽 틈새에서 새롭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 저자 소개

아다니아 시블리(팔레스타인, 1974~)는 소설, 희곡, 단편, 서사 에세이를 집필해왔다. 2001년 소설 『마사스』(2002, 영역본 『터치』 2009)로, 2003년 소설 『우리 모두 사랑에서 똑같이 멀리 떨어져 있다』(2004, 영역본 2012)로 카탄 젊은작가상(팔레스타인)을 두 차례 수상했다. 최근작 소설 『타프실 타나위』(2017, 영역본 『사소한 디테일』 2020)는 내셔널북어워드 최종 후보에 올랐고 인터내셔널 부커상 후보로 지명되었다. 시블리는 또한 유럽 여러 대학과 팔레스타인 비르자이트 대학교(2012~2018)에서 학술 연구와 강의에 참여해왔다. 최근 몇 년간 제5회 베르겐 어셈블리의 공동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Wild Papers 편집자:잉고 니어만

아랍어 번역: 엘리스 거스리

영어 번역: 박재용

영어 편집: 로산나 맥레플린

삽화: 에바 파브레가스

그래픽 디자인: 아나 도밍게스 스튜디오

국문 그래픽 디자인: 박지현

이 글은 「저항의 본성에 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World Literature Today』 86권 4호(2012년 7~8월, 오클라호마 대학교)에 수록되었다. 2004년에는 스위스 잡지 『Du』(du-745)에 독일어로 처음 게재되었다.

© 2025, , Adania Shibli, Eva Fàbregas & Wild Publishing,

a division of Institute Art Gender Nature at HGK Basel FHNW, Switzerland